

근대적 사회구성체와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

김은중
서울대학교

김은중(2016), 「근대적 사회구성체와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7(2), 25-60.

초 록 1990년대 후반 이후 포퓰리즘 연구는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했다. 포퓰리즘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퓰리즘에 대한 많은 사례연구와 이론적 천착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에 대한 만족스러운 이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에 대한 인식은 오랫동안 부정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은 비정상적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사회주의 블록이 붕괴된 이후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주된 흐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본 논문에서는 가라타니 고진이 제시한 근대적 사회구성체인 자본-네이션-국가의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을 새롭게 고찰한다. 이를 위해서 II장에서는 가라타니가 교환양식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근대적 사회구성체론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근대적 사회구성체인 자본-네이션-국가에서 네이션의 문제를 조명한다. I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의 문제의식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을 재해석할 것이다.

핵심어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 근대적 사회구성체, 네이션, 생산양식과 교환양식, 자본-네이션-국가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기술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3).

I. 머리말

1960-70년대에 봄을 이루었다가 1980년대 이후 약화되었던 포퓰리즘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르네상스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 호불호의 관점으로 극명하게 나뉘는 포퓰리즘 현상이 담론과 실천의 두 측면에서, 한국이나 라틴아메리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전면적이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²⁾ 한때는 후진국 현상으로 간주되었던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본산임을 자처하는 유럽에서도 정치의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³⁾ 이런 상황에서 포퓰리즘을 둘러싼 논쟁이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고 정치권과 언론매체에서는 이를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포퓰리즘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포퓰리즘은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포퓰리즘은 비정상적이고, 변칙적이며, 헛된 희망을 품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 현상으로 취급되었다. 이 때문에 포퓰리즘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포퓰리즘의 부정적 특징, 즉 다른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정당, 정치체제나 정치적 운동과 비교하여 포퓰리즘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면,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와 달리 포퓰리즘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며, 특정한 사회계급의 경제적 이해를 드러내는 정치적 표현도 아니다. 그렇다고 특정한 정치체제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다(de la Torre 2010). 이러한 부정적인 특성 때문에 포퓰리즘은 급격한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
- 1) 1960-70년대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는 1930-4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고전적 포퓰리즘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Germani(1962); Di Tella(1965); Córdova(1974); Germani, Di Tella and Ianni(1977); Laclau(1977).
 - 2) 1990년대 후반 이후 포퓰리즘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Conniff(1999); Weyland(2004); Laclau(2005); Panizza(2005); Canovan(2005); Aibar(2007); Arditì(2007); De la Torre and Peruzzotti(2008); De la Torre(2010); De la Torre and Arnson(2013); Albertazzi and McDonnell(2015); De la Torre(2015); van Kessel(2015).
 - 3) 예를 들어, 국민투표는 대의민주주의와 달리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수단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에서 1970년대에 연평균 3회 실시되었던 국민투표는 2000년대 이후 연평균 8회 실시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한편에서는 대중 포퓰리즘으로 경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의정치의 보완으로 인정한다. <http://www.hankookilbo.com/v/ff902a7b773747f498170346ea55dd68>

출현한 일탈이나 정치적 해프닝으로 취급되었다. 또한 포퓰리즘은 추종자들을 조종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후진적 정치행태와 동일시되었다. 요약하자면, 포퓰리즘은 급격한 사회변동의 시기에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지도자가 기존의 정치적 제도를 통하지 않고 민중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대중영합주의나 대중선동주의로 규정되었다.

포퓰리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은 사회주의 블록이 붕괴된 이후였다. 사회주의 블록의 붕괴는 신자유주의의 승리로 인식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사회주의라는 대항자를 잃어버린 자유민주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심상치 않은 정치적 현상으로 포퓰리즘이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포퓰리즘은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시기에도 작용하는 보편적 현상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의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증상(symptom)’으로 본다(Arditi 2007). 즉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타사이거나 민주주의와 전혀 무관한 이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속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에 불안과 소요를 불러일으키는 민주주의의 내적 주변부라고 할 수 있다”(Arditi 2007; 진태원 2013, 195 재인용).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에르네스토 라클라우는 포퓰리즘을 정치적인 것 일반의 논리와 동일시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2005). 이를 계기로 포퓰리즘은 이제 하나의 시대정신(Zeitgeist)으로 긍정되고 있다(Mudde 2004). 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 포퓰리즘을 시대정신으로 평가하는 연구들은 포퓰리즘을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데 동의한다. 첫째, 사회가 인민/민중과 엘리트의 대립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둘째, 인민/민중의 목소리(vox populi)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고 셋째, 인민/민중은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믿음을 표시한다.⁴⁾

4) 인민은 포퓰루스(populus)에 해당하고 민중은 플레브스(plebs)에 해당한다. 플레브스는 포퓰루스와 상관적이다. 포퓰루스가 어떤 정치 공동체의 성원 전체를 가리킨다

이처럼 포퓰리즘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기존의 정치적 제도를 통하지 않고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의 민중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로 요약된다면, 포퓰리즘에 대한 긍정적 해석은 “포퓰리즘은 전체 인민(people)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쟁취하려는 운동이며, 기존의 권력구조에서 소외된 지식인들이 급격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이다. 인민들로부터 발현되는 단순하고 전통적인 형식과 가치로 돌아가거나 이것들을 적용하려는 믿음이다”(Berlin 1969, 179).⁵⁾ 결과적으로, 부정적 의미의 포퓰리즘은 정치엘리트가 주체가 된 대중융합주의로, 긍정적 의미의 포퓰리즘은 인민이 주체가 되는 민중주의로 규정될 수 있다(서영표 2014).⁶⁾ 본 논문의 목적은 20세기 초부터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을 민중주의의 관점에서 새롭게 성찰하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는 대중융합주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민중주의의 차원으로 옮겨간 이후에도 ‘포퓰리즘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민중주의의 주체로 등장한 인민(pueblo)은 누구이고, 인민들로부터 발현되는 전통적인 형식과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료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에 대한 접근이, 경제적 관점이든 정치적 해석이든, 일면적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이 『세계사의 구조』에서 제시한 근대적 사회구성체인 자본-네이션-국가의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을 다면적으로 재해석할 것이다. 사회구성체의 역사를 생산양식의 관점이 아니라 교환양식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가라타니의 이론은 자본, 네이션, 국가가 상호 연관된 변증법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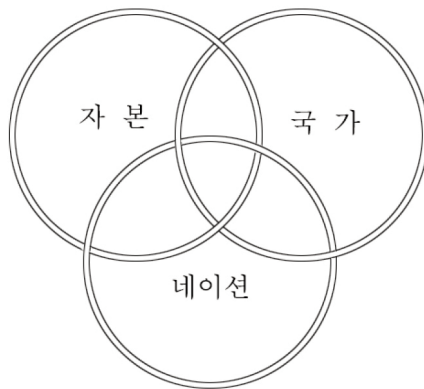
면 플레브스는 포퓰루스의 일부인이면서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제된 집단이다. 민주주의는 포퓰루스를 통해 공동체 전체를 호명하지만 사실상 배제된 집단인 플레브스를 은폐한다(김은중 2012; 진태원 2013).

- 5) 포퓰리즘을 주제로 대규모 학술회의가 처음 열린 것은 1967년 영국의 런던정경대학에서였다. 43명의 학자가 참가한 학술회의는 크게 세 가지 주제-포퓰리즘의 유형, 포퓰리즘의 기본적 특징, 포퓰리즘의 정의-를 다루었다.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은 마지막 세션의 의장을 맡았다.
- 6) 이 글에서 포퓰리즘의 형용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부정적 의미의 포퓰리즘과 긍정적 의미의 포퓰리즘을 구분하기 위해 부정적 의미의 포퓰리즘은 ‘포퓰리스트(populist)’로, 긍정적 의미의 포퓰리즘은 ‘포퓰리즘적’ 혹은 ‘민중적(popular)’으로 표현한다.

의 차원에서 포폴리즘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⁷⁾ 이를 위해서 II장에서는 가라타니의 근대적 사회구성체론과 교환양식의 상관관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III장에서는 근대적 사회구성체인 자본-네이션-국가에서 ‘상상의 공동체’인 네이션의 문제를 조명한다. 네이션은 인민/민중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I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의 문제 의식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포폴리즘을 재해석할 것이다.

II. 교환양식과 근대적 사회구성체 자본-네이션-국가

사회구성체(Gesellschaftsformation/Social Formation)는 사회를 구성되어 가는 것, 형성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사회를 구성되어 가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두 가지 상반되는 측면을 함축하는데, 하나는 사회란 완성된 어떤 형태(form)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형태로 귀속될 수 없는 이질적인 지대들이 여전히 뒤섞여 공존하고 있음을 뜻한다(이진경 2008). 1990년 사회주의 블록이 붕괴되었을 때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근대 사



〈그림 1〉 자본-네이션-국가의 보로메오의 매듭

7) nation은 국민으로도 민족으로도 번역된다. 이 글에서는 nation의 음역으로 네이션으로 표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으로 표기한다.

회는 더 이상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형태로 완결되었다는 의미에서 ‘역사의 종언’을 선언했다. 가라타니는 후쿠야마의 선언이 미국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틀렸지만 근대 사회를 자본-네이션-국가로 파악했다는 점에서는 옳았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이라고 부른 사태는 근대 사회가 자본-네이션-국가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고 이러한 형태는 더 이상 근본적인 변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 네이션, 국가는 보로메오의 매듭처럼 결합되어 있고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나머지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⁸⁾ 가라타니가 근대적 사회구성체를 자본-네이션-국가의 형태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그것을 완결의 형태로 본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가라타니의 관심은 자본-네이션-국가의 근대 사회구성체를 완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본-네이션-국가 시스템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한다.

헤겔은 『법철학 강의』에서 자본, 네이션, 국가를 상호연관된 삼위일체적인 변증법적 체계로 파악했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법철학 강의』에 대한 비판에서 헤겔의 관념론적 사변을 유물론적으로 전도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네이션-국가라는 복합적인 사회구성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마르크스는 자본제경제를 하부구조로, 네이션과 국가를 관념적인 상부구조로 간주했고 자본제가 폐기되면 국가나 네이션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라타니는 헤겔이 파악한 근대의 사회구성체 및 거기에 도달한 ‘세계사’를 유물론적으로 전도시키면서 동시에 헤겔이 파악한 자본-네이션-국가라는 삼위

8) “보로메오의 매듭이란 르네상스 시대의 귀족 가문이었던 보로메오가의 문장이었으며, 세 개의 링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말한다. 세 개의 링은 자신의 고유성을 잃지 않고, 끊기지도 않으면서 각자 자신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로 결합되어 있고, 어느 하나라도 떨어지면 파괴되고 마는 하나의 일체를 이룬다. 보로메오 매듭의 삼위일체성을 정신분석학에 응용한 학자가 자크 라캉이다. 라캉은 인간 정신의 구조가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의 삼위일체임을 말한 바 있다. 가라타니는 자본, 네이션, 국가도 이러한 삼위일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인디고 연구소 2015, 73-74).

일체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세계사를 생산양식이 아니라 교환양식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경제적 하부구조=생산양식이라는 전제로는 자본제 이전 사회를 설명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자본제경제조차도 설명할 수 없다. 자본제경제는 그 자체가 ‘관념적 상부구조’ 즉 화폐와 신용에 근거한 거대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생산양식’=경제적 하부구조라는 관점을 버려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경제적 하부구조’ 일반을 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저 생산양식 대신에 교환양식에서 출발하면 되는 것이다. **교환이 경제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모든 교환양식은 경제적인 것이다.** 즉 ‘경제적’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경제적 하부구조’에 의해 사회구성체가 결정된다고 해도 지장이 없다. 예를 들어, 국가나 네이션은 각기 다른 교환양식(경제적 하부구조)에서 유래하고 있다. 그것들을 경제적 하부구조로부터 구별하여 관념적 상부구조로 간주하는 것은 이상하다. 국가나 네이션을 단순히 계몽으로 해소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자본과는 다른 교환양식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가라타니 2012, 35. 강조는 필자)

가라타니는 마르크스가 국가를 시민사회에 의해 규정되는 관념적 대상으로 간주했고, 이 때문에 국가를 능동적 주체로 상정한 헤겔을 비판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로부터 경제적 구조를 바꾸면 국가나 네이션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고 말한다. 가라타니가 지적한 것처럼, 마르크스의 생각과 달리 마르크스주의는 국가와 네이션이라는 문제에 걸려 넘어져 커다란 실패를 경험했다. 마르크스주의운동의 실패는 한편으로는 국가사회주의(스탈린주의)의 출현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항하는 내셔널 사회주의(파시즘)의 등장이었다. 달리 말하자면, “자본주의를 초극하려는 시도는 국가와 네이션을 해소하기는커녕 그것들을 유례 없이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가라타니 2012, 33). 자본-네이션-국가는 보로메오 매듭으로 묶여 있으면서도 자본도 네이션도 국가도 서로 다른 것이고, 각각 다른 교환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본에의 대항이 동시에 국가와 네이션(공동체)에 대한 대항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본-네이션-국가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강력하다. 그중 어떤 것을 부정하더라도 결

국이 매듭 안으로 회수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것들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각기 서로 다른 ‘교환’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제경제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동시에 그것과는 다른 원리에 서있는 것으로서 네이션이나 국가를 고려해야 한다. 바꿔 말해, 자본에 대한 대항은 동시에 네이션-국가에 대한 대항이 되어야 한다”(가라타니 2005, 468-469).

가라타니는 네 가지 교환양식을 제시하고 각각의 교환양식에 사회구성체를 대입시킨다. 교환양식A는 증여-답례의 호수(互酬)적 시스템으로 씨족공동체에 뿌리를 둔 네이션에 해당한다. 교환양식B는 약탈과 재분배(지배와 보호)의 시스템으로 국가와 결합한다. 교환양식C는 상품교환으로 자본제경제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가라타니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어떤 사회구성체든 세 가지 교환양식의 결합으로 존재했으며 어떤 교환양식이 지배적인가에 따라 서로 달랐다. 예를 들어, 교환양식A는 부족사회에서 지배적인 교환양식이다. 여기서는 부나 권력을 독점할 수 없다. 부족사회가 국가사회로 이행하면서 교환양식B가 지배적이 되고 교환양식A는 종속적이 되며 교환양식C도 발전한다. 교환양식C가 지배적이 되는 것은 자본제사회이다. 자본제사회에서 교환양식A는 억압되지만 소멸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교환양식D는 교환양식A의 고차원적인 회복이다. 교환양식D가 교환양식A의 고차원적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교환양식A로의 회귀가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면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환양식D는 보편종교의 창시기에 존재했던 공산주의적 집단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근대적 사회구성체인 자본-네이션-국가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에서 교환양식D는 구성적 이념이라기보다는 규제적 이념이다. 규제적 이념은 결코 실현되지는 않지만 그것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지표로서 존재한다. 이 때문에 가라타니는 교환양식D 및 그것에서 유래하는 사회구성체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지만-예를 들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나키즘, 어소시에이션리즘(associationism) 등- 오해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 X라고 표기한다.⁹⁾

인류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교환양식A가 지배적이었던 사회는 유

B 약탈과 재분배 (지배와 보호)	A 호수 (증여와 답례)
C 상품교환 (화폐와 상품)	D X

〈그림 2〉 교환양식

B 국가	A 네이션
C 자본	D X

〈그림 3〉 근대의 사회구성체

동민이 정주한 이후에 형성된 씨족사회였다.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는 원시사회에서 음식, 재산, 여성, 토지, 봉사, 노동, 의례 등 다양한 것이 증여되고 답례되는 호수를 통해 사회구성체가 형성되는 원리를 발견했다. 정주에 의해 부의 축적이 가능하게 되었고, 부의 축적은 부나 권력의 차이, 계급분해를 초래했다. 씨족사회는 그 위험성을 증여-답례의 의무로 해소한 것이다. 호수는 긍정적인 성질(우호)과 부정적인 성질(전쟁)을 모두 포함한다.¹⁰⁾ 가라타니가 증여-답례의 호수적 교환양식A에 주목하는 것은 교환양식A가 정주에 의한 부의 축적으로 생겨나는 불평등이 계급사회나 국가로 귀결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호수는 불평등을 억제하고 국가의 발생을 억제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이다.¹¹⁾ “일반적으로 국가의 출현은 인류사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중요시된다. 하지만 오히려 정주=비축과 함께 불평등과 국가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쪽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원리가 호수성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씨족사회는 미개사

9) 가라타니는 교환양식D를 X로 표기하면서도 일련의 저서에서 어소시에이션리즘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10) 호수적 교환양식은 증여를 매개로 다른 공동체와의 우호적 관계를 쌓는 것이지만 ‘피의 복수(전쟁)’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공동체의 성원이 다른 공동체의 성원에 의해 살해되었을 경우에 보복이 행해진다. 보복의 ‘의무’는 증여에 대한 답례의 ‘의무’와 같은 맥락이다. 피의 복수가 금지되는 것은 범죄를 재판하는 상위조직으로서 국가가 성립할 때이다.

11) 피에르 클라스트르는 국가 없는 원시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족은 어떤 형태로든 주장이 그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우월한 기술적 능력이 정치적 권위로 전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추장은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며 사회가 그 자체로서 추장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장이 이 관계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뒤바꾸어 자신을 위해 사회를 봉사시키고 권력이라고 명명한 것을 부족에 대해 행사하는 불가능하다. 원시사회는 추장이 전제군주로 전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2005, 255-256).

회가 아니라 고도의 사회시스템이라고 말해야 한다”(가라타니 2012, 74).¹²⁾

교환양식A에서 교환양식B로의 이행, 즉 교환양식B가 지배적이 되는 사태는 국가의 탄생과 결부된다. 국가는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들을 계속적으로 지배하는 형태이다. 국가는, 한편으로는 폭력적 수탈을 통해 유지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탈을 일시적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피지배자를 보호하고 육성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다른 국가의 약탈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고, 관개와 같은 대규모 공공 사업을 통해 농업공동체로부터 부역과 공납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국가를 공동체나 사회로 환원할 수 없는 것은 국가가 원래 다른 국가(敵國)를 상정하기 때문이다.¹³⁾ 이처럼 국가사회는 부족사회나 자본제사회와 달리 약탈-재분배 혹은 지배-보호의 교환양식에 기초한다.¹⁴⁾ 근대 국가에도 약탈-재분배라는

- 12) 호수성은 씨족공동체 내부 원리가 아니라 공동체와 공동체 간에 작용하는 원리이다. 호수성과 비슷한 공동체 내부 원리로는 공동기탁(pooling)이 있다. 공동기탁은 씨족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적 단위인 소세대(household)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타산적인 순수 참여이다. 호수성은 적대적 공동체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만드는 원리이며, 이를 통해 공동체를 확대하는 원리이다. 참여에 의해 공동체와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상위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 간의 위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호수는 상대를 지배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꿔 말하자면 다른 공동체의 위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참여의 호수는 (트로브리안드 제도의) 쿨라(Kula) 교역이 보여준 것처럼 다수공동체의 연합체가 ‘미니세계시스템’을 형성한다. 이런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항상 갈등을 품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새로운 참여의 호수에 의해 재확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호수에 의해 형성되는 공동체의 결합은 환절(環節)적이다. 즉 위로부터 그것을 통합시키는 조직, 즉 국가가 되지는 않는다. 아마 이런 부족연합체의 연장에 수장제국가(chiefdom)를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국가 바로 직전에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어디까지나 국가에 대항하는 호수의 원리가 작동한다. 국가가 출현하는 것은 호수적이지 않은 교환양식이 지배적이 되었을 때이다”(가라타니 2012, 83-84. 강조는 필자).
- 13) 마르크스가 제시한 사회구성체의 역사적 단계—원시씨족적 생산양식, 아시아적 생산양식, 고전고대적 생산양식, 게르만적 봉건제 생산양식, 자본제 생산양식—에서 원시씨족적 생산양식 단계를 제외하면 집권적인 국가기구가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산양식의 단계에 따라 국가의 내용이 달라져도 교환양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약탈-재분배(지배-보호)라는 국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14) 경제인류학자 칼 폴라니도 호수성(상호성)과 상품교환 외에 재분배를 경제체제의 중요한 통합수단으로 언급했다(2009). 그러나 폴라니는 재분배가 약탈에 기초하고 있

교환양식은 남아 있다. 다만 납세와 재분배라는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다.

교환양식C인 상품교환은 교환양식B처럼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발생했다. 상품교환경제는 고대부터 존재했지만 교환양식B가 지배적인 사회구성체를 무너뜨린 일은 없었다. 교환양식C는 상호계약에 기초하는 교환이라는 점에서 약탈-재분배라는 교환양식B와는 다르다. 교환양식C는 교환양식B를 전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양식B를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상품교환은 국가의 보호가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상품교환은 상호계약에 기초하지만 그런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힘은 국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제사회는 국가사회와 상보적인 관계를 맺는다.¹⁵⁾ 그러나 상품교환은 국가의 강제력과는 또 다른 강제력을 갖게 되는 데 그것은 화폐이다. 국가주권이 만인이 한 사람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사회계약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화폐는 상품들의 주권을 양도하는 사회계약으로 발생한다.

III. 네이션이라는 ‘상상의 공동체’

근대국가와 시장경제의 확립은, 한편으로는 국가가 상품교환의 원리를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교환 원리에 의해 그때까지 존재했던 다양한 공동체가 해체되는 사태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교환양식C가 지배적인 형태가 되면서 근대 사회구성체는 자본-네이션-국가의 형태를 취하

다는 것과 국가가 약탈-재분배라는 교환양식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재분배를 원시사회부터 현대의 복지국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약탈-재분배라는 교환양식이 국가의 고유한 원리라는 점을 놓치고 있다(가라타니 2007).

- 15) “20세기에 국가가 케인즈주의적인 경제 개입, 더욱이 사회복지나 노동정책, 교육정책을 취하게 된 것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았던 시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세기에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불린 것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세계의 헤게모니를 가진 영국이라는 국가의 ‘경제정책’이었고, 그것은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한 거대한 군사예산과 과세에 근거하고 있었다. 보호주의적 정책을 취한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국가경제에의 개입은 자명한 것이었다. 국가가 자본주의경제를 발전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할 것이 관료기구이다”(가라타니 2012, 255-256).

게 되었다. 네이션은 교환양식B가 지배적이었던 국가사회가 교환양식C가 우세해지는 자본제사회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네이션은 사회구성체 중에서 자본-국가의 지배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해체되어 가던 공동체를 상상적으로 회복하는 형태로 등장했다. 네이션은 자본-국가의 성립 이후, 자본-국가에 의해 형성된 것이면서 동시에 자본-국가의 성립으로 초래된 공동체의 약화와 소멸에 대한 저항으로 등장한 것이다.

네이션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네이션을 혈연적·지연적·언어적 공동체로 보는 관점이다. 둘째는 네이션을 상상의 공동체로 보는 관점이다.¹⁶⁾ 실제적으로 네이션에는 이 두 가지 관점의 요소들이 서로 중첩되어 있다. 이 때문에 네이션은 민족으로도, 국민으로도 해석된다. 첫 번째 관점이 제시하는 것처럼 네이션의 역사적 기반은 혈연적·지연적·언어적 공동체이다. 그러나 그런 공동체가 반드시 네이션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네이션-스테이트(국민-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네이션과 국가라는 이질적인 것의 결합이고, 네이션과 국가의 결합 이전에 자본과 국가의 결합이 선행된 것이다(가라타니 2005; 2007; 2009; 2012).¹⁷⁾ 유럽에서 자본과 국가가 결합된 것은 절대주의 왕권국가 시기였다. 사회구성체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주의 왕권국가는 교환양식C가 우세해지는 과정에서 그때까지 지배적이었던 교환양식B가 변형되어 나타난 형태이다. 절대주의 왕권국가는 16세기 이후 자본주의

16) 네이션과 내셔널리즘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초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에릭 홉스봄과 테렌스 레인저가 공동으로 편집한 『만들어진 전통(The Invention of Tradition)』, 에른스트 겔너의 『네이션과 내셔널리즘』이 1983년에 동시에 출간되었다. 이들은 네이션과 내셔널리즘을 인간의 원초적 의식으로 파악하는 원초주의(primordialism)나 영속주의(perennialism)를 비판하고 네이션과 내셔널리즘이 근대에 형성된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근대주의(modernism)를 주창했다. 근대주의는 ‘인간은 어떻게 공동체를 구성하는가(how peoples unite themselves)’라는 질문에서 ‘국가는 어떻게 네이션을 만들어내는가(how states invent nations)’라는 질문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Centeno 2002; Calhoun 1993; 김은중 2014).

17) 근대에 우리가 통상 국가로 부르는 것은 국민-국가(네이션-스테이트)이며 국민-국가는 자본주의체제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가라타니는 자본-네이션-국가로 부른다.

세계경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왕이 대립하고 있던 다수의 봉건제후를 제압하고 교회의 지배권을 빼앗음으로써 성립되었다. 네이션의 기반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이때였다. 네이션은 그 이전까지 다양한 신분이나 집단에 속해있던 사람들이 왕의 신하로서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형성되었다. 즉 네이션은 절대적인 주권자인 왕에게 복종하는 신민(臣民)으로서 형성된 것이다. 주권자인 왕의 신민(subject)이었던 네이션이 국가의 주체(subject)로서 인민주권을 회복하는 것은 절대왕권을 타도한 시민혁명을 거친 이후였다. 그러나 절대왕권이 선행하지 않으면 주권자인 네이션(인민)은 출현하지 않는다(가라타니 2012).¹⁸⁾ 이런 맥락에서 네이션과 내셔널리즘은 자본-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근대의 산물이다.

네이션을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은 네이션을 상상의 공동체로 규정한다. 네이션은 공동체로 상상된다는 것이다. 첫 번째 관점에 의하면 네이션을 만든 것은 국가와 자본이다. 이러한 관점은 네이션을 이해하는데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네이션은 그저 자본-국가의 수동적인 산물이 아니다. 그것 스스로가 자본-국가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출현한 것이다. 네이션은 노동력이나 경제적 이익이라는 차원만으로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에 대한 반발을 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네이션은 감정이라는 차원에 근거하고 있다고 해도 좋다. [...] 네이션이 ‘감정’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은 네이션이 국가나 자본과는 다른 교환양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통상 그렇게 생각되고 있지 않다”(가라타니 2012, 307-308). 네이션이 단순히 자본-국가의 수동적 산물이

18) 에른스트 겔너는 네이션이 출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으로 산업자본주의를 든다. 절대왕권이 그 이전까지 다양한 신분이나 집단에 속해있던 사람들을 동일한 지위로 묶었듯이 산업화된 근대사회는 사회적 유동성을 통해 평등주의적 사회를 만들었다. 산업사회의 특징은 직업적인 유동성과 급격히 변화하는 불안정한 분업,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런 맥락에서 겔너는 네이션이 노동력상품의 형성이 네이션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했다(마사치 2010). 겔너는 교환양식C의 관점에서 네이션의 형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가라타니는 이런 노동력상품은 산업사회 이전에 근대국가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징병제와 의무교육이 직접적인 예이다.

아니라 자본-국가에 대항하는 감정의 차원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교환양식 A가 지배적인 호수적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¹⁹⁾ 네이션의 형성은 동시에 그때까지 존재했던 다양한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네이션이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다양한 신분과 집단의 사람들에게 신민으로서의 평등성을 부여했던 절대주의 왕권이었다. 그 뒤 절대주의 국가의 신민들은 시민혁명을 거쳐 평등과 함께 개개인의 자유를 획득했다. 신민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의 이행은 다른 말로 대체하면 ‘신분’에서 ‘계급’으로의 이행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은 교환양식 C가 지배적인 자본제사회의 출현이면서 동시에 교환양식 A가 지배적이었던 호수적 공동체의 소멸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네이션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뿐만 아니라 연대를 상상한다. 프랑크혁명의 슬로건인 ‘자유, 평등, 우애’에서 우애는 개인들 사이의 연대 감정이다. 우애는 “가족이나 부족공동체 안의 사랑과는 다른, 오히려 그와 같은 관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연대의 감정이다”(가라타니 2012, 308).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대라는 감정은 심리학적 차원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형태로밖에 의식되지 않는 ‘교환’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베네딕트 앤더슨이 네이션을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 규정했을 때 그는 네이션을 근대 자본주의적 경제구조가 낳은 관념적 상부구조

19) 여기서 다시 호수적 교환양식이 선의의 증여-답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호수적 교환양식은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자연 상태’를 벗어나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공동체의 독립성을 상실하거나 공동체 간 위계적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실로 증여는 사회를 단결체적인 의미에서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분절적인 의미에서 조직할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호수성이란 ‘사이’의 관계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개개로 분리된 일군의 사람들을 한층 고도의 통일체로 용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서로 관계지음으로써 대립을 영속화시키는 것이다. 증여는 계약하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이해의 아득한 상공에 높이 솟아 있는 제3자를 결코 필요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 증여는 평등을 희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도 결코 아니다. 교환에 의해 맹약을 맺는 집단은 스스로 그 모든 힘을 다 쓰지만 않는다면, 언제까지라도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다”(살린스 2014; 가라타니 2012, 82 재인용. 강조는 필자).

로 생각하지 않았다.²⁰⁾ 앤더슨이 생각하기에 상상의 공동체인 네이션은 계몽에 의해 해소되어야 할 공상이 아니라 계몽주의에 의해 해체된 종교공동체의 대리보충(substitute)이었다.²¹⁾ 그러나 가라타니는 네이션이 종교공동체의 대리보충이 아니라 농업공동체의 대리보충이라고 생각한다.

자본-국가에 의한 공동체의 해체는 앤더슨이 지적한 것처럼 심각한 의미를 가졌다. 공동체의 소멸은 그것이 가지고 있던 '영원'을 보증하는 세대적 시간성의 소멸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농업공동체의 경제에서는 단지 살아 있는 자들 사이의 호수만이 아니라 죽은 자(선조)와 앞으로 태어날 자(자손)와의 사이에도 호수적 교환이 상정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살아 있는 자는 자손을 생각해서 행동하고, 또 자손은 그들을 위해 배려해준 선조에게 감사한다. 농업공동체의 쇠퇴와 더불어 자신의 존재를 선조와 자손 사이에 둬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와 같은 영속성이라는 관념도 사라진다. 보편종교는 개인의 영혼을 영원하도록 만들지만, 공동체의 이런 시간성을 회복시키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상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네이션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란 현재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성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내서 널리움이 과거와 미래에 얽매는 것은 그 때문이다.(가라타니 2012, 311)

네이션이 농업공동체의 대리보충이라는 것은 네이션이 교환양식B나 교환양식C가 아닌 교환양식A, 즉 호수적 교환양식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네이션이란 상품교환의 경제에 의해 해체되어가는 공동체의 '상상적' 회복이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네이션은 국가나 자본과는 다른 교환양식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자본에 대한 접근방식으로는 네이션을 해체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네이션은 객관적 실재가 아니라 '상상적'인 것이다.

네이션에서는 현실의 자본주의경제가 가져오는 격차, 자유와 평등의 결여가

-
- 20) 베네딕트 앤더슨은 『상상의 공동체』 서문에서 그가 네이션을 연구한 것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소련의 군사 개입, 중국과 소련의 국경분쟁(1969),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1978-1979), 중국의 베트남 침공(1979) 같은 마르크스주의운동 내부의 분열과 반목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 21) 앤더슨은 벤야민의 말을 빌려 종교의 '구세주적 시간(Messianic time)'에서 근대의 '동질적이고 공허한 시간(homogeneous empty time)'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네이션이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상상적으로 보전(補填)되고 해소되고 있다. 또 네이션에서는 지배 장치인 국가와는 다른 호수적 공동체가 상상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네이션은 평등주의적인 요구이고, 국가나 자본에 대한 비판과 항의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션은 자본-국가가 초래하는 모순을 상상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그것이 파탄 나는 것을 막는다. 네이션에는 이와 같은 양의성이 있다.(가라타니 2012, 318)

네이션이 갖는 양의성이란, 한편으로는 네이션이 자본-국가가 초래하는 모순을 비판하고 항의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호수적 교환양식에 뿌리를 둔 공동체를 상상함으로써 자본-국가가 파탄이 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서두에서 언급한 자본-네이션-국가의 보로메오의 매듭이다. 네이션은 자본제경제가 초래한 격차가 메워지고 해소되고 있다고 상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네이션은 서로 다른 교환의 원리 위에서 있는 자본과 국가를 상상적으로 종합한다.

IV. 자본-네이션-국가와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

이 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을 근대적 사회구성체와의 관계에서 설명할 차례이다. 20세기에 등장한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은 크게 세 개의 시기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1930-1954년의 고전적 포퓰리즘(classical populism)이며,²²⁾ 두 번째 유형은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 네오포퓰리즘(neoliberal

22) 고전적 포퓰리즘 시기는 대략적으로 1930-40년대로 규정된다. 이 글에서 명시한 고전적 포퓰리즘 시기는 브라질 바르가스 대통령이 브라질을 통치한 시기(1930-1954)와 일치한다. 페론과 카르테나스의 집권 시기도 이 기간에 포함된다. 그러나 특별히 1954년을 고전적 포퓰리즘의 종말로 명시한 것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회주의 정권이었던 과테말라의 아르벤스 정권이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군부 쿠데타로 붕괴된 해이기 때문이다. 군부는 아르벤스 대통령에게 공산주의라는 혐의를 씌웠지만 실제로는 그가 농지개혁으로 '바나나공화국'인 유나이티드프루츠의 토지를 몰수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과테말라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킨·헤인즈 2014). 이를 계기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본격화되었다. 고전적 포퓰리즘에서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주로 언급하는 것은 고전적 포퓰리즘을 경제 모델의 이행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기 때문이다. 포괄적 의미의 포퓰리

neopopulism)이고, 세 번째 유형은 2000년대에 등장한 급진적 포퓰리즘(radical populism)이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은 일반적으로 세 개의 시기와 유형으로 구별되지만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라틴아메리카 역사는 포퓰리즘의 역사라고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²³⁾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의 역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그때까지 성립되지 않았던 자본-네이션-국가를 만들어 가는 역사이기 때문이다.²⁴⁾ 다시 말한다면, 20세기에 들어서서 라틴아메리카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면서, 한편으로는 자본-국가가 상상의 공동체인 네이션을 만들어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네이션이 자본-국가에 대항하는 지속적 과정이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운동이다. 보로메오의 매듭으로 묶여 있는 자본-네이션-국가는 서로 다른 교환양식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다른 것으로 수렴되거나 무시될 수 없다. 20세기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을 자본, 네이션, 국가의 상관관계로 본다면 포퓰리즘 역시 일면적으로 접근해서는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에서 포퓰리즘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포퓰리즘은 위로부터 대중의 동원이 가능했던 구조적 위기의 상황에서 등장한 사회적이고

즘의 관점에서 본다면 1910년 멕시코혁명, 1918년 아르헨티나의 이리고엔 대통령 집권(1916-1922), 페루의 빌링헤스트 정권(1912-1914)도 고전적 포퓰리즘에 해당된다(Dussel 2012; Gonzalez 2007).

- 23) 포퓰리즘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유래된 개념이 아니다. 포퓰리즘의 큰 흐름은 19세기 후반 러시아와 미국에서 발견된다. 러시아 포퓰리즘의 기원은 차르(zar) 통치 하에서 일군의 지식인들이 주도한 ‘인민 속으로(v narod)’ 운동이었다. 러시아 포퓰리즘운동은 농민들의 전통적 공동체인 미르(mir)를 새로운 사회건설의 토대로 삼아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봉건제사회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Boron 2011). 미국 포퓰리즘운동의 뿌리는 인민당(People’s Party)이었다. 인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거대 자본의 피해자였던 중서부 지역의 농민들이었고, 이들은 자본 독점을 막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Hofstadter 1969). 러시아의 포퓰리즘이 혁명적이었다면 미국의 포퓰리즘은 개혁적이었다. 러시아 포퓰리즘의 주도 세력은 지식인과 학생이었고 미국 포퓰리즘의 주도 세력은 농민들이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모두 농촌운동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Basset 2006). 러시아와 미국의 포퓰리즘운동은 19세기 말에 소멸되었다. 러시아와 미국의 포퓰리즘이 폄훼된 의미로 인식되지 않듯이 라틴아메리카 고전적 포퓰리즘도 마찬가지였다.
- 24) 예를 들어, 벤자민 킨은 『라틴아메리카의 역사(하)』에서 라틴아메리카의 20세기 역사를 포퓰리즘의 역사로 해석한다(2014).

정치적인 현상이면서 라틴아메리카 역사의 한 국면에 해당하는 현상이다. 둘째, 포퓰리즘은 정치적 전략 혹은 정치 스타일로서 순전히 정치적인 현상이다. 셋째,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내적인 모순이다. 마지막으로, 포퓰리즘은 법치의 토대가 허약한 비정상국가의 파산적 결과이다. 이러한 설명들은 포퓰리즘을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일면적으로만 접근한다. 역사적으로 어떤 사회구성체든 세 가지 교환양식의 결합으로 존재했으며 어떤 교환양식이 지배적인가에 따라 서로 달랐던 것처럼,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도 세 가지 교환양식의 복합체이며, 어떤 교환양식이 지배적인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진다.

고전적 포퓰리즘은 경제적 이행의 관점에서 해석되었다. 이행적 관점이란 1930년대 라틴아메리카가 경험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사회적 이동, 새로운 중산계층과 도시 노동자 계급의 등장, 계급으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출현, 전통적 과두지배 체제의 약화 등을 가리킨다. 고전적 포퓰리즘 연구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제르마니는 이행적 관점에서 고전적 포퓰리즘을 근대화로 이행하는 위기의 국면에서 출현한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았고 위기가 해소되면 비정상적인 포퓰리즘은 사라지고 정상적인 정치로 복귀하게 된다고 보았다. 제르마니는 고전적 포퓰리즘에 사회주의에 대한 요구, 강한 민족주의적 요소, 계급중심주의의 거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행론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겼다. 그보다 이탈리아의 파시즘을 경험한 제르마니가 우려한 것은 민중의 요구가 카리스마를 가진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에 용해되어 버리는 사태였다(Germani 1978).²⁵⁾

25) 라틴아메리카의 고전적 포퓰리즘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산업화와 도시화의 초기 단계에서 등장한 사회정치적 다계층(multi-class) 간 연합이며 둘째, 대중소비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과 재분배 정책이고 셋째, 민중과 지배블록 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이며 넷째,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의 정치적 제도를 우회한 하향식 대중 동원이다(Roberts 1995). 이러한 특징 중에서도 고전적 포퓰리즘의 특징으로 부각되는 것은 네 번째의 정치적 관점이고, 나머지 특징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된다. 네 번째로 언급된 포퓰리즘에 대한 부정적 해석은 다시 7가지로 세분된다. ① 인민에 대한 호소와 반엘리트주의, ②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 사회상, ③ 선동을 통한 단순화, ④ 불안의 정치와 음모론, ⑤ ‘원래적인

고전적 포퓰리즘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달리 근대적 사회구성체론의 관점에서 보면 고전적 포퓰리즘의 시기에 추진되었던 수입대체산업화는 경제적 이행의 한 단계가 아니라 자본(교환양식C)이 지배적이 되는 사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고전적 포퓰리즘이 추진했던 근대화는 단순히 역사적 계기와 발전 단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한 해석도 달라져야 한다. 카리스마를 가진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네이션의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주권국가(교환양식B)가 되었던 유럽의 절대주의 왕권에 해당된다.²⁶⁾ 절대주의 왕권이 다양한 신분이나 집단을 주권자인 왕에게 복종하는 신민으로 동일화했던 것처럼 페론, 바르가스, 카르테나스는 전통적인 대농장주들과 과두주의자들의 권력에 도전했으며, 새롭게 등장한 중산층과 노동계급, 계급으로 규정할 수도 없고 조직되지도 않은 다양한 사회계층을 네이션으로 동조화(sincronización)했다.

유럽에서 절대왕권은 많은 봉건귀족을 제압하고 사람들을 모두 왕의 ‘신하’로 삼는 것에서 네이션이라는 동일성을 창출했다. [...] 한편 산업자본주의적으로 후진적인 지역은 대부분 식민지체제하에 있었다. 즉 주권이 없었다. 또 그 안에 부족한 대립이 있어서 네이션으로서의 동일성을 가질 수 없었다. 서구열강은 그와 같은 분열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식민지화를 이루었다. 또 그와 같은 지역에는 자급자족적인 농업공동체가 존재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네이션으로서 자립하고 기존의 봉건적 체제를 타파하고 더욱이 공업화를 이루려고 하는 자는 누구일까? 지주계급이나 매판자본가는 현상에 만족하고

것’에 대한 동경, ⑥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에 대한 의존, ⑦ ‘위기’(갑)에 대한 대응(주정립 2006).

- 26) 유럽에서 절대주의 왕권이 존재했던 시기는 16-18세기였다. 그러나 가라타니가 강조하는 것은 절대주의 왕권이 존재했던 시기가 아니라 봉건적 신분이나 부족적 대립을 해소하고 근대의 네이션을 형성시킨 절대주의 왕권의 역할이다. 따라서 ‘왕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 권력자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라타니는 일본의 천황, 중국의 모택동 주석,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예로 든다(가라타니 2009). “유럽에서 절대주의 왕권이 걷게 된 과정은 보편적이다. 그것은 반드시 ‘왕’이 아니어도 좋다, 사회구성체 내의 분열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자라면. 그리고 이것은 근대세계시스템에서 주변에 놓인 지역이 독립과 산업화를 꾀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참고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형 독재정권이나 사회주의적 독재정권은 절대주의 왕권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좋다”(가라타니 2012, 263. 강조는 필자).

있었다. 민족의 독립이나 전근대적인 사회의 개혁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자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는 절대왕권 내지 부르주아혁명이 행한 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가라타니 2012, 367-368)

인용문의 언급은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신식민주의와 농노제를 기반으로 한 대농장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라틴아메리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회주의자는 고전적 포퓰리즘 시기의 카리스마 리더십에 해당한다. 이런 맥락에서 페론과 바르가스, 카르데나스는 그 당시에 포퓰리스트 정치인으로 비판받은 것이 아니라 독재자로 비판받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Dussel 2012). 고전적 포퓰리즘 시기의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는 그때까지 라틴아메리카에 존재하지 않았던 네이션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구심적 권력이었다. 페론과 바르가스, 카르데나스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그들은 네이션의 기반을 형성했다. 포퓰리즘을 정치적인 것의 일반적인 논리로 이론화한 라클라우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발견할 수 있다. 라클라우는 자신의 책 『포퓰리즘적 이성에 대하여』에서 ‘포퓰리즘적 이성(populist reason)’을 ‘집합적 정체성들의 형성의 본성 및 논리’로 규정한다(2005).²⁷⁾ 라클라우에 따르면,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회적 집단의 요구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 ‘민주주의적 요구(democratic demands)’에 머물게 되지만 등가 연쇄를 통해 접합되면 ‘민중적 요구(popular demands)’가 된다. 민주주의적 요구와 민중적 요구가 다른 점은 민중적 요구가 적대적 경계선을 형성하는 반면에, 민주주의적 요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적대는 ‘적(그들)’과 ‘동지(우리)’의 이분법적 사회상을 만든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포퓰리즘의 특징 중에서 가장 부정적 요소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칼 슈미트가 지적한 것처럼, 선과 악의 구별이 도덕적인 것의 고유의 영역이며, 아름다움과 추함의 구별이 미적인 것의 고유의 영역이고, 이익과 손해의 구별이 경제적인 것의 고유의 영역인 것처럼,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의 고유의 영역이다(슈미트 2012). 그러나 교환양식의 관

27) 라클라우는 긍정적 의미의 포퓰리즘도 populist라는 형용사를 사용한다.

점에서 보면 적대는 교환양식B에 고유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것’의 고유한 영역은 넓은 의미에서 경제적인 하부구조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적대를 통해 형성되는 민중적 요구는 상상의 공동체인 네이션을 의미한다.

적대에는 공동체 내부와 외부라는 서로 길항하는 두 개의 차원이 존재한다. 라클라우가 지적하는 적대는 공동체 내부의 적대이다. 즉 공동체 내부의 적대적 경계선은 ‘역사적인 지배 블록(bloque histórico en el poder)’과 ‘피억압자들의 사회적 블록(bloque social de los oprimidos)’ 간에 설정된다. 슈미트가 지적하는 적대는 공동체 외부의 적대를 포함한다. 적대가 공동체 내부에서 네이션을 만든다면, 공동체 외부에서는 국민-국가(네이션-스테이트)를 만든다. 따라서 고전적 포퓰리즘 시기의 카리스마 리더십은 네이션과 국민-국가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했다.²⁸⁾

적대라는 개념만큼이나 포퓰리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또 다른 개념은 인민(민중)이라는 개념이다. 인민은 천(千)의 얼굴을 가진, 혹은 신발은 있지만 거기에 맞는 발은 어디에도 없는 신데랄라의 유리 구두에 비유되는 포퓰리즘의 ‘단 하나의 특징(the defining feature)’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이처럼 인민은 포퓰리즘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위상을 갖는 개념이지만 인민이 누

28) 가라타니에 따르면, 세계제국과 제국주의는 다르다. 세계제국이 교환양식B가 지배적인 사회구성체라면, 제국주의는 교환양식C가 지배적이다. 세계제국은 중심을 차지하는 국가가 다른 국가들을 지배하되 피지배국가의 종교, 언어, 정치체제, 경제활동 등의 독자성을 인정하며 강제적으로 동질화하지 않는다. 세계제국은 그 명칭과 달리 ‘세계’를 뒤덮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다수의 세계제국이 존재한다. 세계제국과 달리 제국주의는 피지배국가들을 동질화한다. 가라타니가 강조하듯이, 세계제국과 제국주의의 차이는 정치적 통치원리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고 교환양식의 관점으로 볼 때만 이해된다. 세계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1870-1930년까지의 시기는 제국주의로 규정된다. 제국주의는 국민-국가가 다른 국민-국가를 지배하는 것이다. 1-2차 세계대전은 세계적 자본주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국민-국가 간 전쟁이었다. 세계대전은 기존의 사회구성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는 부족적·농업적 공동체를 해체했다. 이 때문에 세계대전은 ‘상상의 공동체’인 네이션의 기반을 제공했고 제국주의적 지배는 의도치 않게 국민-국가를 창출했다. 라틴아메리카는 세계대전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세계적 상황의 외부에 있을 수 없었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고전적 포퓰리즘은 역사적 당위였고, 그 시기에 등장했던 카리스마 리더십은 ‘이성의 간교’라고 해석될 수 있다.

구이고, 인민을 호명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포퓰리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포퓰리즘과 인민을 연결시키는 논의들이 자칫 ‘출구 없는 골목’에 갇힐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다. “포퓰리스트들이 사용하는 인민이라는 개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매우 탄력적이고 신축성이 뛰어나다.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포퓰리스트들이 원하는 대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동원될 수 있다. 이질적이고 잡다한 이해관계를 한데 묶어 효과적으로 대중을 동원하는 데 인민의 이름을 빌리는 것 이상의 유력한 무기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장점이 분파주의와 환원주의라는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서병훈 2008, 124).²⁹⁾

그렇다면 포퓰리즘의 단 하나의 특징인 인민은 누구이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포퓰리즘의 인민은 앞에서 살펴본 상상의 공동체인 네이션이다. 인민이 고정적이지 않고 탄력적이며 신축성이 뛰어난 개념인 것은 ‘공동체로 상상된 네이션’이기 때문이다. 네이션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는 교환양식A가 지배적인 호수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네이션을 만든 것은 자본-국가이지만 네이션은 자본-국가가 가져오는 자유와 평등의 결핍을 상상적으로 보전함으로써 자본-국가가 파탄이 나는 것을 막는다. 네이션은 평등을 바탕으로 상상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네이션은 살아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죽은 자(선조)와 태어날 자(자손)까지 포함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에서 인민을 이야기할 때 이런 점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캐노벤은 민주주의를 실용성의 측면과 동시에 구제(redemption)의 측면을 갖는 것으로 정의했다(2002). 대의적인 틀 안에서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실용성의 측면이라면, 대중의 열망과 인민의 의지를 직접 표현하는 것은 구제의 측면이다. 그렇다면 대중의 열망과 인민의 의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분배의 정의가 될 수도 있고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환양식A의 회복이다. 머리글에서 인용한

29) 인민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는 서병훈(2008, 119-122)을 참조할 것.

것처럼 교환양식A를 회복한다는 것은 ‘인민들로부터 발전되는 단순하고 전통적인 형식과 가치로 돌아가거나 이것들을 적용하려는 믿음’이다. 인민들로부터 발전되는 단순하고 전통적인 형식과 가치는 구체적으로 네이션을 통해 대리보충된 농업공동체를 의미한다. 농업공동체는 증여-답례에 의한 호수적 교환양식을 통해 공동체의 항상성(homoestasis)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적 경제에 의해 해체된 농업공동체의 호수적 교환양식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러시아의 나로드니키였던 여성활동가 자술리치(Vera Ivanovna Zasulich)의 질문과 마르크스의 대답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러시아의 농민공동체는 심각하게 붕괴되어 있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태고적 토지공유제의 한 형태인데, 이로부터 직접적으로 공산주의적인 공동소유라는 보다 고도의 형태로 이행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농민공동체는 그전에 서구의 역사적 발전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해체과정을 견디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 오늘날 가능한 유일한 답은 다음과 같다. 만약 러시아혁명이 서구의 프롤레타리아혁명에 대한 신호가 되어 양자가 서로를 보충한다면, 현재의 러시아 토지공유제는 공산주의적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맑스 · 엥겔스 1991, 372; 가라타니 2012, 373-374 재인용)

가라타니가 지적하는 것처럼, 마르크스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교환양식A의 회복은 일국적 혁명으로는 불가능하며 ‘세계동시혁명’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환양식A의 회복은 단순히 과거의 공동체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면서 고차원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교환양식A를 부정하면서 고차원적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교환양식C가 지배적인 상황, 즉 근대세계체에서 자본-네이션-국가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것을 가라타니는 교환양식D라고 부른다. 포폴리즘 연구가 주목해야 할 것도 교환양식D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교환양식D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단지 교환양식D가 라틴아메리카에서 포폴리즘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포폴리즘의 긍정적 측면인 민중주의는 보통사람들에 대한 낭만적

미화가 아니라 교환양식D의 뿌리를 탐색하는 작업과 관련된 것임을 말하려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고전적 포폴리즘이 소멸되기 시작한 것은 세계자본주의의 주변부인 라틴아메리카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헤게모니를 장악한 미국의 제국주의 체제에 새롭게 편입되면서부터였다. 국내의 과두보수 세력과 국제적인 자본주의 세력의 압력에 의해 허약한 고전적 포폴리즘의 물질 토대—수입대체산업화, 산업부르주아지, 노동조합—가 급속히 약화되었고 미국의 개입은 본격화되었다. 1960년대 이후 포폴리즘 세력을 대체한 것은 발전주의와 사회주의 혁명 노선이었다. 발전주의가 자본(교환양식C)의 강화를 의미하고, 사회주의 혁명 노선이 국가(교환양식B)를 통해 자본주의를 억누르려는 시도였다면, 포폴리즘의 소멸은 미약하게 기반이 형성되었던 네이션(교환양식A)의 약화를 의미한다. 소위 냉전이라 불리는 시기에 자본은 직접적인 수탈보다는 단순한 상품 교환을 통해 중심부가 주변부로부터 잉여를 수탈했다. 자국의 자본을 보호하고 잉여를 효율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진보를 위한 동맹’의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군부였다. 중심부 국가들의 입장에서 ‘상상의 전쟁’ 혹은 ‘오랜 평화’로 인식된 냉전은 주변부 국가들에서는 체계적인 국가 폭력과 내전으로 얼룩진 열전이었다(권현익 2013). 이 과정에서 고전적 포폴리즘 시기에 겨우 형성 기반이 마련되었던 네이션은 획일적인 국가주의의 산물로 인식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서 자본주의가 위기에 부딪히면서 발전주의의 환상은 깨지기 시작했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중심부의 전략이 수정되면서 군부독재 정권은 쫓겨나가거나 스스로 물러났다. 그러나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민주화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변화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었다.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는 민중이 주도하는 민주화 요구를 사전에 흡수하고 무력화하려는 자본주의 진영의 ‘선제 개혁’이었다(로빈슨 2008). 근대적 사회구성체의 관점에서 보면 1970년대 중반부터 라틴아메리카에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는 자본이 국

가와 네이션의 명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였다.³⁰⁾

라틴아메리카에 네오포폴리즘—아르헨티나의 메넴, 페루의 후지모리, 브라질의 콜로루 지 멜루, 멕시코의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 볼리비아의 빅토르 파스 에스텐소르 등—이 등장한 것은 형식적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겹쳐지는 시기였다. 네오포폴리즘의 특징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와 국가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의 주권이고, 국민의 주권은 선거를 통해 정부에 의해 대행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가를 그 내부에서만 바라보고, 국가가 그 자체로 능동적인 주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였다. 이 때문에 기예르모 오도넬은 네오포폴리즘을 ‘위임 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라고 불렀다(1994). 중상주의 시기부터 국가와 자본주의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오포폴리스트 정치인들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강령을 따르기 위해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을 분리시켰다. 국가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대항자였던 복지국가자본주의의 조차 신자유주의로 합류하면서 국가의 자립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예를 들어, 고전적 포폴리즘 시기에 국영기업이 출현하고 외국인 소유 기업과 자연자원의 국유화가 추진된 반면에, 네오포폴리즘 시기에는 국가 규제 철폐와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메넴은 이리고옌이 국유화했던 국영석유회사(Yacimientos Petrolíficos Físcales)를 민영화했고, 멕시코의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도 카르데나스가 국유화했던 멕시코 국영석유회사(Petróleos Mexicanos)와 전력회사를 민영화시키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1990년대 신자유주의 네오포폴리즘은 정치엘리트가 주체가 된 대중융합주의였다.

30) 네그리와 하트는 국민-국가의 주권을 대신해 세계를 통치하는 새로운 주권 권력을 제국이라고 불렀다. 네그리와 하트에 따르면, 제국에서 국민-국가의 경계는 소멸되고 네이션(국민)은 다중(multitude)이 된다. 네그리와 하트는 자본, 국가, 국민이 어느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서로 다른 교환양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무시한 것이다. 네그리와 하트가 말한 제국은 세계시장이며 자본주의가 전지구적으로 확장되어도 국가는 소멸되지 않는다. 국가는 상품교환의 원리와는 다른 원리에 서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근대 세계에서 네이션에 속하지 않은 자는 주권을 상실한 자, 즉 난민(難民)이 된다(김은중 2014).

2000년대에 등장한 급진적 포퓰리즘은 고전적 포퓰리즘 시기에 기반이 마련되었던 네이션이 사회운동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현상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럽에서 국민-국가가 형성된 것은 절대왕정이 시민혁명에 의해 타도된 이후였다.³¹⁾ 왕의 신민(subject)이었던 인민이 주체(subject)가 될 때 네이션이 국가의 주권자가 되고 그때 비로소 국민-국가가 되는 것이다. 즉 국민은 먼저 신민으로 형성되었다. 고전적 포퓰리즘 시기에 ‘네이션의 형성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한 것은 인민이 아직 주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택동 시기에 네이션의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모민(毛民)이 일정한 수준의 모택동 비판을 통해서 중국의 국민이 되었던 것처럼, 고전적 포퓰리즘 시기 아르헨티나의 네이션은 국민이라기보다 페론-주의의 신민이었고, 브라질의 네이션도 국민이라기보다 바르가스-주의의 신민이었다.³²⁾ 19세기 초반 스페인과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후 지체되고 있었던 라틴아메리카의 시민혁명은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었던 1980년대부터 사회운동을 통해 분출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1980년대는 민중주의 포퓰리즘의 관점에서 보면 민중이 주권을 요구하기 시작한 ‘수확의 10년’이었다.

1980년대는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완전히 다른 시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목격된 것은, 앞선 시기보다 눈에 잘 띄지 않고 때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지라도, 많은 전선에서 전개되는 저항과 집단적 투쟁의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1980년대에 대중동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1990년대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가지 형태가 뒤섞인 집단행동은 매우 다양해서 그것들을 한꺼번에 지칭할 표식을 찾기가 곤란하다. 무단 점유자와 생태운동가, 도시의 가난한 주부들과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그룹들, 인권운동가들과 동성애자들에 이르기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집단행동의 스펙트럼은 광범위하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흑인들과 원주민들, 새로운 양상의 노동자 단체운동과 농민 투쟁, 중산 계층과 중하 계층 시

31) 유럽의 예를 들자면 영국의 명예혁명(1688)과 프랑스혁명(1789)이다.

32) 라클라우가 지적한 것처럼, 민중적 정체성은 카리스마 리더십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생물학적 의미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민중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결속시켜주는 어떤 이름을 가리킨다. “포퓰리즘은 오직 레닌-주의, 마오-주의, 페론-주의 등으로 존재할 뿐이다”(Vatter 2012, 247).

민운동, 열대우림 보호운동도 포함된다. 심지어는 (살사와 레게 같은) 아프로-카리브 음악으로 상징되는 문화운동과 반핵운동도 있다. 이러한 집단행동들은 틀림없이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변화된 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 현실을 대변한다.(Escobar · Alvarez 1992, 1-2)

2000년대에 들어와 라틴아메리카 정치 지형을 변화시킨 것은 1980년대에서부터 시작된 민중운동이었다. 200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변화를 정치 제도나 이슈의 중심이 되는 정치인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고전적 포퓰리즘과 급진적 포퓰리즘의 차이를 놓치는 것이다. 급진적 포퓰리즘에도 카리스마를 갖는 정치인의 역할이 요구되었지만 급진적 포퓰리즘은 그전까지 엑스트라의 위치에 있었던 민중이 주역이 됨을 의미한다(김은중 2013a).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잘 나타나는 것이 차베스가 내건 ‘21세기 사회주의’이다.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를 20세기 사회주의와는 다르며, 민주주의와도 반목하지 않는, 민중이 ‘주역(主役)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participative and protagonist democracy)’로 정의했다. 지난 역사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인간 삶의 기본적인 모순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식했는데, 사회주의가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와 공동체적 사회주의의 모순을 부각시킨 반면에,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와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의 모순을 부각시켰다. 이로부터 ‘민주주의=자유주의=자본주의’ 대(對) ‘사회주의=국가주의=전체주의’라는 이원론적 등식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이원론적 등식은 자본과 국가를 별개의 실체로 대립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이션을 누락시킨다. 그 결과, 근대적 사회구성체인 자본-네이션-국가의 보로메오의 매듭이 풀리게 된다. 차베스는 이원론적 등식 대신에 ‘21세기 사회주의=네이션(주역으로 참여하는 민중)=민주주의’라는 등식을 제시했다(김은중 2013b).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는 그 내부만으로 생각할 수 없고 항상 다른 국가나 자본과의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 그리고 네이션의 출현은 공동체와 평등성을 지향함으로써 자본제가 초래한 격차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이런 맥락에서 차베스가 제시한 ‘21세기 사회주의=네이션=민주주의’라는 등식은 신자유주의 네오포퓰리즘에 의해 해체된 자본-네이션-국

가를 다시 보로메오의 매듭으로 묶은 것이다. 다시 말해, ‘21세기 사회주의’는 자본-네이션-국가에 대한 다면적 접근을 통해서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교환양식D를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차베스가 국내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미션 프로그램과 공동경영을 실천하며, 국제적으로는 자유무역(Free Trade) 대신에 공정무역(Fair Trade)을 지향한 것은 이러한 시도의 일환이었다.

교환양식D가 호수적 공동체의 교환양식A를 고차원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의 원주민들이 주도하는 민중주의는 베네수엘라의 경우와는 다른 또 다른 시사점을 던진다.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의 민중주의는 그들이 수많은 역사적 굴곡을 지나오면서 유지해온 선조들의 공동체(ayllu)를 현재의 상태를 지양하는 실재적 운동으로서 현실화하고 조직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은중 2015).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의 복원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임을 선언한다. 즉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국가가 스스로를 구성하는 새로운 권력에 맡길 수 있도록 국가 수준에서 법령을 비준하고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사회의 자율적인 조직 능력을 펼쳐 내는 일을 지지하는 것이다”(García Linera 2009a, 357-358). 이것이야말로 “‘혁명적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답할 수 있는 최대한이다. 노동자의 기반을 넓히고 노동자 세계의 자치권을 확장하는 일, 공동체주의적인 그물망과 절합과 기획이 있는 곳마다 코뮌리즘적 공동체 경제의 형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다”(García Linera 2009b, 75). 고전적 포퓰리즘 시기에 페루 공산당을 창당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산업자본주의에도 진입하지 못했고 노동계급도 존재하지 않았던 페루에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갖는 집단이 원주민이라고 주장했던 마리아테기를 ‘포퓰리스트’라고 비난했을 때, 그들은 계급 문제에 사로잡혀 원주민 공동체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주민 공동체가 교환양식D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깨닫지 못했다.

볼리비아와 에콰도르는 신헌법 제정을 통해 국가 재건을 진행하고 있다. 볼

리비아와 에콰도르는 국가 재건의 아젠다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으로 다국민성(plurinacionalidad)과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를 제시했다.³³⁾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의 국가 재건 작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인 자본-네이션-국가의 토대를 인정하면서 이를 넘어서려는 시도이다. 두 나라의 국가 재건을 주도한 것은 원주민운동이다. 다국민성은 원주민의 관점에서, 그리고 탈식민적 관점에서 네이션을 다시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이션을 공동체로 상상한다는 것이다. 두 나라의 변화를 주도한 원주민들은 다국민성을 내세워 원주민의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정치적 독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에보 모랄레스가 집권한 이후에 분리 독립을 주장한 것은 오히려 식민지 시기부터 라틴아메리카를 통치해온 백인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한 구 지배세력이었다(Orellana 2011). 국가 재건의 또 다른 축인 수막 카우사이는 원주민 공동체인 아이유(ayllu)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규합 개념이다. 아이유는 친족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모든 생명-세계(bio-world)로 확장된다. 수막 카우사이(Buen Vivir)는 아이유를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소속되는 공동체의 충만한 삶의 원리이다(김은중 2016). 교환관계에서 보면 수막 카우사이는 인간과 인간의 교환관계라는 차원의 밑바탕에 있는 인간과 자연의 교환관계를 포함한다. 자본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마르크스주의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생산의 관점에서 볼 뿐 교환이라는 관점에서는 보지 않았다.³⁴⁾ 흔히 오해하듯이 안데스 지역의 원주민운동이 추구하는 공동체는 역사 이전의 낙원이나 미래에 도래할 유토피아가 아니다. 그들이 교환관계를 통해 추구하는 공동체는 자본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회주의와의 대비 속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새롭게 구축하려는 공동체이다. 이런 맥락에서

33) 에콰도르의 신헌법 제정은 2008년이고 볼리비아는 2009년이다. 수막 카우사이는 에콰도르의 키추아(kichwa) 원주민어이다. 볼리비아에서는 아이마라(aymara) 원주민어로 수막 카마냐(Suma Qamaña)로 표현된다. 여기서는 수막 카우사이를 사용한다.

34) 가라타니가 지적하는 것처럼 초기 마르크스는 교통이라는 개념으로 넓은 의미의 교환을 생각했다. 마르크스는 상품교환이라는 기초적인 교환양식에서 시작하여 복잡한 자본주의적 경제시스템의 총체를 해명하려고 했다(가라타니 2012; 2013).

안데스 지역의 민중주의는 교환양식A의 고차원적 회복인 교환양식D의 모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V. 맺음말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는 고전적 포퓰리즘에서 시작해 네오포퓰리즘을 거쳐 급진적 포퓰리즘에 이르기까지 정치엘리트가 주체가 된 정치적 전략(술수)에 대한 분석에 집중되었다. 고전적 포퓰리즘에 대한 구조적·이행적 분석은 라틴아메리카에만 국한되는 일시적 현상으로 취급되어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페론과 바르가스는 끊임없이 팽휘된 의미의 포퓰리즘의 상징적 인물로 거론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퓰리즘의 '단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인민/민중은 포퓰리즘을 비난하는 무기로 이용되거나 초월적론적 공백으로 남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중주의의 관점에서 포퓰리즘을 바라보고, 인민/민중을 네이션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포퓰리즘의 인민/민중이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인 것처럼, 네이션과 내셔널리즘도 쉽게 정의하기 곤란한 개념이다. 인민/민중과 네이션이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을 일면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가라타니 고진이 제시한 근대적 사회구성체 자본-네이션-국가는 이러한 개념들에 다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해준다. 자본과 국가를 보로메오의 매듭으로 연결하는 네이션은 근대적인 개념이다. 네이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민/민중도 근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인민/민중을 본질주의적 개념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또한 자본-네이션-국가는 보로메오의 매듭으로 묶여 있으면서도 각각 다른 교환양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민/민중을 자본의 교환양식이나 국가의 교환양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네이션은 자본-국가에 의해 형성된 근대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자본-국가가 초래하는 모순을 비판하고 항의하는 호수적 교환양식에 뿌리를 둔 상상된 공

동체이다. 네이션이 갖는 이러한 양의성은 민주주의로서의 포폴리즘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인민/민중으로부터 발현되는 전통적인 형식과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급진적 포폴리즘으로 거론되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는 카리스마 리더십, 사회운동의 주체와 조직 방식, 자본주의에 대안 모색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자본-네이션-국가의 통합적 사회구성체를 통해 자본-네이션-국가를 넘어서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

가라타니는 사회주의라는 이념이 사라진 뒤에 자본-네이션-국가를 넘어서 그 바깥을 보는 이념과 상상력이 쇠퇴한 상황에서 각국이 주권을 방기함으로써 형성되는 세계공화국을 교환양식D의 모델로 제시한다. 가라타니의 제안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으며 가라타니의 이론을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교환양식의 관점에서 세계사의 구조를 재해석하는 그의 이론은 라틴아메리카의 포폴리즘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점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포폴리즘 일반에 대한 분석에도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 가라타니 고진(2013), 『자연과 인간』, 조영일 옮김, 도서출판b.
 _____(2012), 『세계사의 구조』, 조영일 옮김, 도서출판b.
 _____(2009), 『네이션과 미학』, 조영일 옮김, 도서출판b.
 _____(2007), 『세계공화국으로: 자본-네이션-국가를 넘어서』, 조영일 옮김, 도서출판b.
 가라타니 고진(2005), 『트랜스크리틱』, 송태욱 옮김, 한길사.
 권현익(2013), 「냉전의 다양한 모습」, 『역사비평』, 105, pp. 221-235.
 김은중(2016), 「안데스 문명의 자연관(Sumak Kawsay)과 『중용』(中庸)의 성(誠)론에 대한 상호문화적 해석」,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7, No. 1, pp. 1-36.
 _____(2015), 「안데스 코뮤니즘, 도래할 공동체?」,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 26 No. 3, pp. 103-132.
- _____(2014), 「라틴아메리카 독립과 네이션, 내셔널리즘: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그리고 그 너머」, *중남미연구*, Vol. 33, No. 1, pp. 269-300.
- _____(2013a),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을 다시 생각한다: 민중 개념의 재구성 과 급진민주주의」, 『역사비평』, 105, pp. 127-156.
- _____(2013b),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진보평론』, 56, pp. 150-173.
- _____(2012),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에 대한 정치철학적 재해석」,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3, No. 2, pp. 27-61.
- 로빈슨, 윌리엄(2008), 「라틴아메리카의 다두제: ‘시장민주주의’라는 모순어 법」, 허쉬버그, 에릭 et. al.,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김종돈 · 강혜정 옮김, 모티브북.
- 마사치, 오사와 엮음(2010), 『내셔널리즘론의 명저 50』, 김영작 · 이이범 옮김, 일조각.
- 맑스, 칼 · 프리드리히 엥겔스(1991),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최인호 옮김, 박종철출판사.
- 살린스, 마셜(2014), 『석기시대 경제학』, 박충환 옮김, 한울.
- 서병훈(2008), 『포퓰리즘: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선택』, 책세상.
- 서영표(2014), 「포퓰리즘의 두 가지 해석: 대중융합주의와 민중 민주주의」, *민족문화연구*, Vol. 63, pp. 3-42.
- 슈미트, 칼(2012), 『정치적인 것의 개념』, 김효진 · 정태호 옮김, 살림.
- 앤더슨, 베네딕트(2002), 『상상의 공동체』, 윤형숙 옮김, 나남.
- 이진경(2008),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 그린비.
- 인디고 연구소(2015), 『가능성의 중심: 가라타니 가라타니 인터뷰』, 궁리.
- 주정립(2006),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 *시민사회와 NGO*, Vol. 4, No. 1, pp. 43-79.
- 진태원(2013), 「포퓰리즘, 민주주의, 민중」, 『역사비평』, 105, pp. 182-217.
- 클라스트르, 피에르(2005),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홍성흡 옮김, 이학사.
- 킨, 벤자민 · 키스 헤인즈(2014), 『라틴아메리카의 역사(하)』, 김원중 · 이성훈 옮김, 그린비.
- 플라니, 칼(2009),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 · 경제적 기원』, 홍기빈 옮김, 도서출판 길.

- Aibar, Julio(2007), *Vox populis: Populismo y democracia en Latinoamérica*, México: FLSACSO.
- Albertazzi, Daniele and Duncan McDonnell(2015), *Populist in Power*, Abingdon: Routledge.
- Arditi, Benjamín(2007), *Politics on the Edges of Liberalism: Difference, Populism, Revolution, Agita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Arenas, Nelly and Luis Gómez Calcaño(2006), *Populismo autoritario: Venezuela 1999-2005*, Caracas: Cendes, UCV.
- Basset, Yann(2006), “Aproximación a las nociones de populismo y gobernabilidad en los discursos contemporáneos sobre América Latina”, *Revista Opera*, Vol. 6, No. 6, pp. 27-45.
- Boron, Atilio(2012), “¿Una nueva era populista en América Latina?” *El eterno retorno del populismo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Márquez Restrepo, Martha Lucía et. al.(eds.), Bogotá: Editorial Pontificia Universiada Javeriana, pp. 131-158.
- Calhoun, Craig(1993), “Nationalism and Ethnic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19, pp. 211-239.
- Canovan, Margaret(2005), *The People*, Cambridge: Polity Press.
- _____(2002), “Trust the People! Populism and the Two Faces of Democracy”, *Political Studies*, Vol. 47, No. 1, pp. 2-16.
- Cardoso, Fernando H. and Enzo Faletto(1970), *Dependencia y desarrollo en América Latina*, Santiago: FLACSO.
- Centeno, Miguel Angel(2002), *Blood and Debt: War and the Nation-State in Latin America*,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Conniff, Michael(ed.)(1999), *Populism in Latin America*, Tuccaloosa: Univ. of Alabama Press.
- Córdova, Arnaldo(1974), *La política de masas del cardenismo*, México: UNAM.
- De la Torre, Carlos(2015), *The Promise and Perils of Populism: Global Perspectives*, Lexington: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 _____(2010), *Populist Seduction in Latin America*,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 De la Torre, Carlos and Cynthia Arnson(eds.)(2013), *Populism of the Twenty First Century*, Baltimore-Washington, DC: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and The Woodrow Wilson Center Press.
- De la Torre, Carlos and Enrique Peruzzotti(eds.)(2008), *El retorno de pueblo: Populismo y nuevas democracias en América Latina*, Quito: FLACSO.

- Demmers, Jolle. A. E. Fernández Jilberto and Barbara Hogenboom(eds.)(2001), *Miraculous Metamorphoses: The Neoliberalization of Latin American Populism*, London: Zed Books.
- Di Tella, Torcuato(1965), “Populismo y reforma en América Latina”, *Desarrollo Económico*, Vol. 4, No. 16, pp. 391-425.
- Dussel, Enrique(2012), “Cinco tesis sobre el populismo”, *El eterno retorno del populismo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Márquez Restrepo, Martha Lucía et. al.(eds.), Bogotá: Editorial Pontificia Universiada Javeriana, pp. 159-180.
- Escobar, Arturo and Sonia Alvarez(eds.)(1992), *The Making of Social Movements in Latin America: Identity, Strategy and Democracy*, Boulder: Westview Press.
- García Linera, Alvaro(2009a), *La potencia plebeya: Acción colectiva e identidades indígenas, obreras y populares en Bolivia*, Bogotá: Siglo del Hombres Editores y CLACSO.
- _____ (2009b), *La Paz: Muela del Diablo Forma valor y forma comunidad: Aproximación teórica-abstracta a los fundamentos civilizatorios que preceden al Ayllu Universal* Editores y CLACSO.
- Germani, Gino(1978), *Authoritarianism, Fascism and National Populism*,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 _____ (1962), *Política y sociedad en una época de transición*, Buenos Aires: Paidós.
- Germani, Gino, Torcuato Di Tella and Octavio Ianni(1977), *Populismo y contradicciones de clase en Latinoamérica*, NJ: Transaction Books.
- Gonzaleza, Osmar(2007), “Los orígenes del populismo latinoamericano. Una mirada diferente”, *Cuadernos del CENDES*, Vol. 24, No. 66, pp.75-104.
- Hofstadter, Richard(1969), “North America”, *Populism: Its Meaning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Ernest Gellner and Ghita Ionescu(eds.), London: Macmillan, pp. 9-27.
- Laclau, Ernesto(2005), *On Populist Reason*, London: Verso.
- _____ (1977), *Politics and Ideology in Marxist Theory*, London: Verso.
- Mudde, Cas(2004), “The Populist Zeitgeist”, *Government and Opposition*, Vol. 39, No. 4, pp. 541-563.
- O’Donnell, Guillermo(1994), “Delegative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Vol. 5, No. 1, pp. 55-69.
- Orellana, Aillón Lorgio(2011), “The National Question and the Autonomy of the State in Bolivia”, *Reclaiming the Nation. The Return of the National Question in Africa, Asia*

- and Latin America*, edited by Sam Moyo and Paris Yeros, Northampton: Pluto Press, pp. 235-254.
- Panizza, Francisco(2005), *Populism and the Mirror of Democracy*, London: Verso.
- Roberts, Kenneth(2008), “El resurgimiento del populismo latinoamericano”, in *El retorno de pueblo: Populismo y nuevas democracias en América Latina*, edited by Carlos De la Torre and Enrique Peruzzotti, Quito: FLACSO.
- _____(1995), “Neoliberal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Populism in Latin America: The Peruvian Case”, *World Politics*, Vol. 48, No. 1, pp. 82-116.
- van Kessel, Stijn(2015), *Populist Parties in Europe: Against of Discontent?*,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Vatter, Miguel(2012), “The Quarrel between Populism and Republicanism: Machiavelli and the Antinomies of Plebian Politics”,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Vol. 11, No. 3, pp. 242-263.
- Weyland, Kurt, et. al.(2004), *Releer los Populismos*, Quito: Centro Andino de Acción Popular.

김은중

서울대학교
ocpaz@snu.ac.kr

논문투고일: 2016년 7월 23일

심사완료일: 2016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2016년 8월 11일

Modern Social Formation and Populism in Latin America

Eun-Joo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Eun-Joong(2016), "Modern Social Formation and Populism in Latin America",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7(2), 25-60.

Abstract Since the late 1990s there has been a renaissance of scholarship on populism, largely because manifestations of populism are appearing nearly everywhere. But despite the numerous case studies of popular movements and the efforts to develop a theory of populism, the result of this endeavor is not fully satisfactory. In Latin America populism is generally viewed in negative terms. For much of the academic and political reactions to populism it implies an abnormality, a threat to democracy. Around 1990, in the period that ended with the dismantling of the Soviet Union, populism has become mainstream in the politics of contemporary democracy from the opposite ideological angle. This article pushes forward our understanding of populism by rethinking it from the perspective of present-day Capital-Nation-State system, capitalist social formation raised by Karatani Kojin. The article starts by giving an overview of Karatani's prospect that brings the history of social formation to the table by suggesting a focus on modes of exchange. In chapter III we look at how the nation appears within the capitalist social formation as an attempt to recover community which is disintegrating under the rule of capital-state. The nation offers us some vital clues to understand the term the people. Finally, the article revisits the populism in Latin America by considering the problematique of previous chapters.

Key words Populism in Latin America, Modern Social Formation, Nation, Modes of Production and Modes of Exchange, Capital-Nation-State